



하나금융투자

ELS 등 파생결합상품 4종

하나금융투자는 매력적인 쿠폰을 주는 더블한스 리자드 ELS 등 파생결합상품 총 4종을 모집한다.

홍콩지수(HSCEI), 일본지수(NIKKEI225), 유럽지수(EuroSTOXX50)를 기초자산으로 연5.01%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9117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홍콩지수(HSCEI), 일본지수(NIKKEI225), 유럽지수(EuroSTOXX50)를 기초자산으로 연5.51%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9118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김민호 기자



유안타증권

투자권유대행인 아카데미

유안타증권은 오는 12일까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영업 지원을 제공하는 '유안타투자권유대행인 마스터 아카데미(Master Academy)' 주니어 5기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마스터 아카데미는 유안타증권에서 2017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우수 투자권유대행인 양성 프로그램이다. 주니어, 주식 마스터, 금융상품 마스터 과정으로 구성되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우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주니어 5기 교육 과정은 13일부터 2주간 총 4회에 걸쳐 교육이 진행된다. 실제 투자권유대행인 활동 과정에 부합하는 업무 지식을 중점적으로 다뤄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수강료는 무료다. /손영지 기자

하이투자증권

연 6.2% ELS 200억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9일 오후 1시가지 추가연계증권(ELS) 1종을 총 200억 원 규모로 공모한다.

'HI ELS 1619호'는 코스피200(KOSPI200) 지수, 홍콩항셱중국기업(HSCEI) 지수, 유로스톡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증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85%(12개월), 80%(18개월), 75%(24개월), 70%(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8.6%(연 6.2%)의 수익을 지급한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이다. /손영지 기자

# 두 달 새 6곳 철회... 싸늘해진 IPO 시장

(기업공개)

신규 코스피 공모 6552억 불과  
코스닥 공모 전년비 3분의1 수준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 분위기가 팽팽 열려 붙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중대형급 기업들의 상장이 줄줄이 철회되는 가운데 코스닥시장은 규모가 작은 기업 위주로 상장이 이뤄지고 있다.

양(量)은 물론 질(質)적인 측면에서도 IPO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 투자은행(IB) 업계는 증시 부진으로 적정한 공모가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당분간 IPO 시장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기업가치 인정 못받아"… 잇단 '상장철회'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 달 새 IPO를 철회한 곳은 6곳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부터 카카오게임즈, HDC아이서비스, 프라코, 아시아신택, 드림텍, 베트남CGV 등이 같은 이유로 코스피 상장을 포기했다.

특히 코스피 상장을 준비했던 공모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상장 철회가 집중되고 있어 IPO 시장이 싸늘하다.

먼저 지난 4월 올해 대어급 상장 공모 기대를 모았던 SK루브리컨츠가 수요 예

〈연도별 일반기업 공모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유가증권	건수	6	16	13	8	5
	공모금액 총액	34,770	24,041	42,586	44,484	6,552
코스닥	건수	66	102	67	74	52
	공모금액 총액	11,802	21,190	21,988	35,258	13,124
	시가총액	41,027	85,361	91,289	171,451	60,513

\*2018년 10월5일 기준, 2018년 코스닥 공모건수에는 스펙(SPAC)8건 포함.

/자료=한국거래소, SK증권

측 결과에서 부진한 성적을 받고 상장을 철회했다. 뒤이어 HDC아이디서비스, 프라코, 아시아신택, 드림텍, 베트남CGV 등이 같은 이유로 코스피 상장을 포기했다.

지난 2일 상장철회를 결정한 드림텍 김학섭 대표는 "최근 불투명한 대내외 여건 상 변동성이 극심한 현재 증권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기업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워 대표 주관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잔여일정을 취소했다"며 "기업공개는 내년 초에 재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어급을 보기 힘들다. 올해 예상 시가총액 1조원으로 코

스닥 시장의 기대주였던 카카오게임즈 역시 지난 9월 상장 작업을 중단했다. 회계감리가 지연됨에 따라 기업을 재정비하고 내년 상장을 목표로 IPO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려던 인카금융서비스 역시 지난달 10일 상장을 철회했다.

◆ 쪼그라든 상장규모

연말을 앞두고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기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상장개수는 물론 규모는 지난해보다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5일을 기준으로 올해 신규 상장한 코스피 상장사의 공모금액은

6552억원에 불과하다. 올해까지 아직 두 달여가 남은 것을 감안해도 전년 수준(4조4484억 원)에는 한참 못미친다. 코스닥 역시 전년과 비교해 공모 규모는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또 지난 10월까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완료한 법인(스팩상장 포함)은 48건이다. 현재 상장예비심사에서 승인을 받은 기업이 32곳 임을 고려해도 연내 100개사를 상장시키겠다는 금융당국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해 보인다. 최근 증시 상황을 볼 때 지난해 수준(76개사 상장)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연내 상장은 물론 내년 초를 목표로 했던 기업들도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기업공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모가 산정은 동일업종 기업(피어그룹·Peer Group)의 주가 수준이 영향을 끼치는 만큼 현재와 같은 하락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공모가를 받기가 어렵다"면서 "이미 공모가가 정해진 기업도 시장에서는 공모가가 다소 비싸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운용자산 1.4조... 45년간 벤처·중기에 투자한 VC

(벤처캐피탈)

IPO 간담회

아주IB투자

13~14일 청약, 21일 코스닥 상장  
9월 말 기준 28개 펀드 청산 실적

국내 최초 벤처캐피탈(VC) 기업 아주IB투자가 이달 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아주IB투자는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3, 14일 청약을 거쳐 오는 2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74년 설립된 아주IB투자는 지난 45년간 총 1조 2000억 원의 자금을 벤처·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한 국내 최초, 최장 VC다. 현재 아주IB투자의 운용자산(AUM)은 1조 4000억 원에 이른다. 올 9월 말 기준 총 28개의 펀드 청산 실적을 보유했다.

이러한 업력을 바탕으로 아주IB투자는 연기금, 공제회 등 폭넓은 출자자(L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지원 아주IB투자 대표이사가 회사 설명을 하고 있다. /아주IB투자

P)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LP 보고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체계, 연간 600개 이상의 신규 거래(Deal)를 발굴할 수 있는 딜 소싱 DB(Deal Sourcing DB) 시스템 등을 갖췄다.

2014년 이후 1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은 140억원으로 지난 해 영업이익(163억원)을 80% 이상 달성했다.

김지원 아주IB투자 대표는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큰 VC 시장 내에서 안정적

인 수익을 지속 창출한 것은 차별화된 투자 성과를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아주IB투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만한 투자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글로벌 화학회사 솔베이(Solvay)로부터 아시아 최초로 벤처펀드 운영사로 선정돼 투자 펀드를 운영했고, 2013년에는 국내 벤처캐피탈 최초로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허브로 불리는 '보스탄'에 미국사무소를 설립하고 해외 VC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에 '메디컬 서비스'

한화건설, 총 864가구... 이달 분양  
서울여성병원 연계 검진센터 운영

한화건설은 이달 중 분양예정인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에 '서울여성병원'과 연계한 메디컬 서비스를 도입한다.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초교 부지 일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으로 59~147㎡ 총 864가구로 지어진다.

7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은 여성전문병원인 '서울여성병원'과 연계,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메

디컬 특화 단지로 선보인다. 단지 내 별도 1개동으로 조성되는 서울여성병원의 메디컬센터는 지상 3~14층 규모다. 산부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여성외과 등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한다.

입주민 대상으로 건강검진 혜택을 제공, 사전에 건강을 체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의료비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입주민 대상으로 진료비와 입원비 등 할인 혜택이 주어져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입주민들의 연령대에 맞게 성장 클리

닉, 성인 건강 강좌 등 건강 클리닉도 제공, 입주민들의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류진환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병원이 단지 내에 조성된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수요자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병원은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입주민은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메디컬 특화단지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인기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단지 와 직접 연결된 '역세권' 단지로 단지 내 복합몰인 '아인에비뉴'에는 영화관, 대형서점, 카페,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이규성 기자 peace@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 조감도.